

남구, '2023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6만2천500여 필지 내년 3월 중순 열람 가능...6월 말까지 확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8일 "2023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관내 6만2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가 산정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로, 관내 전체 6만2천500 필지 가량이 포함된다. 남구는 현장조사와 함께 남구 지역의 실거래가 동향 등을 종합적

로 분석한 뒤 개별지 특성과 표준지를 비교해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오는 23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께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

는 주민은 5월 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공시가격은 한달간 지가 조정을 거쳐 6월 27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 토지 소유에 대한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062-607-3261)로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북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21년 연속 수상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21년 연속 수상의 대업을 이어갔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총 6개의 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서류와 인터뷰 등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국 60개 우수사례 단체가 참가했으며 최종 수상 등급은 전시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 등의 심사 결과 결정됐다. 이에 북구는 ▲주민자치 ▲지역 활성화 ▲특별공모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동 주민자치회가 본선에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를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용봉동은 '마을의제 실현의 정석! 용봉골 주민자치 프로세스' 사례로 지역 공동체 모델 개발·운영과 5개년 마을계획의 체계적 추진 공로를 높게 평가받

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삼각동은 '세대와 환경, 재생이 자치로 순환하는 행복한 바람개비 마을'로 우수상을, 매곡동은 '매화마을이 그려가는 하모니-주민총화·리빙랩·마을기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지역활성화 분야는 운암1동이 자생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한 '운암1동만의 우영우 이야기'로 우수상을, '주민이 그려 나가는 살기 좋은 동네 버드리 야구마을'로 응모한 임동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운암2동 '운암철도 9.9.9.' 철길을 뚫고, 사람을 잇다'가 특별공모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마을미래계획을 세우고 주민 스스로 의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이 21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서구, 건강도시학교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도시학교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가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구청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주민 48명을 대상으로 ▲건강도시와 주민리더의 역할 ▲기후위기시대, 건강한 탄소중립도시 ▲마을이웃과 나누고 싶은 환경이야기 ▲내몸과 건강을 지키는 걷기 강좌 및 실습 등 총 4차시의 강의로 진행된다. 서구는 건강도시학교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걷기 동아리에 참여해 건강생활을 독려하는 건강리더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광산구가 최근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공약 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배심원제는 공약 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공약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제 운영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행정과(062-350-4753)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활동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건강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도 제시해 주시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를 위해 '우리동네 건강마을 만들기', '서구민과 함께하는 일상속 걷기실천사업' 등 다양한 건강실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공약 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배심원제는 공약 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공약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광산구는 공약 수립과 평가과정

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35명의 시민배심원을 구성했다. 시민배심원은 12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분인별 토의와 현장활동을 진행한다. 공약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논의해 최종 권고안을 광산구에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민선8기 광산구의 4대 분야 40개 공약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공약을 선정한다. 한편, 광산구는 공약 실천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 8월 19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 /서기만 기자

동구, 행안부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상 '자원순환가게' 탄소중립분야 우수사례 선정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혁신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재활용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동구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는 탄소중립 분야에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주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 동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혼

합쓰레기에서 재활용 자원을 별도 분류해 유가 보상해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분리배출 체험할 수 있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무분별한 국립공원 중심사 입구 등 4곳에 재활용회수기 6대를 설치·운영 중이고 매주 화·수(오전 10시~오후 5시)에는 산수동 문화마당에서 자원순환해설사와 함께 하는 '동구라미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삶에 직접 와닿는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